

## [ 오피니언 ]

## 테마칼럼

광활한 세상

문화의 양기

디자인 세상

과학과 생활



이 난경

“

‘인상 프로젝트’는 대 자연을 공연 무대로 활용한 발상의 전환이 특징이다. 여기에 빛과 소리를 활용해 오감을 자극하고 중국만의 문화적 특색을 담아낸 것이다.

”

그것은 국제적인 중국 영화감독 장이며우가 연출한 ‘인상 프로젝트’였다. 몇 달 전 ‘MBC스페셜’이란 프로에서 ‘춤추는 도시’라는 타이틀로 소개되기도 했던 인상 프로젝트는 장이며우, 왕자오, 관웨 세 사람의 연출한 초대형 실경 공연으로 중국 오지의 도시들을 친정한 문화도 시로 변모시킨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현재 원난의 리장(麗江), 구이린(桂林), 항저우의 시후(西湖)에서 공연되고 있으며 하이난에서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인상 프로젝트’의 중요한 특징은 대 자연을 공연 무대로 활용한다는 발상의 전환인데, 이 외에도 지역민을 공연배우로 활용한 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전개, 빛과

## 중국의 문화, 중국의 힘

지난 주 학회 워크숍이 있어 양평에 다녀왔다. 대학시절 친했던 선배를 오랜만에 만나 그 동안의 안부를 이야기하며 양평의 숲 내용과 물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한가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선배가 꼭 한번 가보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다녀온 중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자기가 본 것 중에 가장 멋있고 감동적이었다고 열변을 토하는 지라, 평소에 문화행사 기획도 하는 선배가 도대체 무엇이 그리 좋았는지 궁금해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전원을 켰다.

그것은 국제적인 중국 영화감독 장이며우가 연출한 ‘인상 프로젝트’였다. 몇 달 전 ‘MBC스페셜’이란 프로에서 ‘춤추는 도시’라는 타이틀로 소개되기도 했던 인상 프로젝트는 장이며우, 왕자오, 관웨 세 사람의 연출한 초대형 실경 공연으로 중국 오지의 도시들을 친정한 문화도 시로 변모시킨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현재 원난의 리장(麗江), 구이린(桂林), 항저우의 시후(西湖)에서 공연되고 있으며 하이난에서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인상 프로젝트’의 중요한 특징은 대 자연을 공연 무대로 활용한다는 발상의 전환인데, 이 외에도 지역민을 공연배우로 활용한 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전개, 빛과

소리를 활용해 오감을 자극하는 연출력, 중국만의 문화적 특색을 담아내는 능력 등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 스토리를 써가고 있었다.

이 공연을 보기 위해 몰려오는 관객 때문에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주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행객들이 관람 후 올린 블로그에서 화려한 빛의 연출이 인상적인 ‘인상유자’란 야간 수상공연의 사진을 보다보니 예전에 본 ‘영광’이란 영화가 생각났다. 스토리는 개인의 이해보다는 국가가 먼저라는 중화 패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지만, 수려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화려한 색감을 뽐내는 영상만은 아름다웠던 장이며우가 감독한 영화다.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 이었던 장면이 호수에서 주인공 두 명이 씨우는 장면이었는데, 물 위를 걸으며 춤추는 것처럼 연출한 그 장면에서 공연의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08 베이징올림픽의 개막식 감독이기도 한 장이며우 감독은 이번 올림픽의 개막식도 ‘인상 프로젝트’로 연출한다고 밝혔다. 어쩌면 ‘인상 프로젝트’가 개막식을 위한 연습무대였던 것이었고 개막식은 전 세계의 관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인상 프로젝트’의 흥보 무대가 되는 셈이다.

중국은 2008 베이징올림픽의 3대 모토를 과학기술, 인문, 환경으로 선언하고 모든 곳에서 실천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의 상징인 주경기장 ‘나오차오’와 수영장 ‘워터큐브’에서 볼 수 있듯이 과감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체택한 중국의 결단력이 놀랍다. 또한 올림픽의 엘리트부터 마스코트, 픽토그램에 인문학적인 전통을 전서체의 한자를 활용해 디자인하고 전통 공예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올림픽메달을 디자인 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사라진 역사와 전통을 복원하여 세계 제일의 스포츠 강국뿐만 아니라, 세계 제일의 문화 강국의 위치도 차지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국제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지역의 경제를 문화로 활성화 시키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러한 중국의 약진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과감한 결단력과 창의력으로 우리나라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잠시 눈을 감고 양평의 아름다운 두물머리 전경을 떠올리니 인상유자 저의 공연 모습이 겹쳐 보였다.

&lt;광주여대 교수&gt;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 설

## 광주 학원가 수강료 편법 인상 뿐아야

광주시내 학원과 교습소의 불·탈법 행위가 균열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51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절반에 가까운 25곳을 적발했다. 학원과 교습소들이 방학을 이용해 수강료 인상 등 불·탈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위반은 수강료의 편법 인상이다. 한 영어학원은 방학특강과 보통특강 등의 명목으로 수강료를 방학 전 16만5천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다른 학원은 평소 하루 2시간씩 주 2회 하던 수업을 주 5회로 늘려 수강료를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렸다.

시교청이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적정 수강비는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 일부 외국어학원은 5만~6만원에 신고된 수강료를 최고 20여만원까지 받는 등 4배 이상의 배가지를 써왔다. 수강료 인상이 등굣길, 서식동, 남구 봉산동 등 학원 밀집지역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고 하니 걱정이다.

## 올림픽 개막 한국선수단 선전 기대한다

베이징올림픽이 오늘 개막된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One World, One Dream)’을 기치로 내건 베이징올림픽은 8일 밤 8시(현지시각) 개막식을 갖고 17일간 지구촌 친지를 벌이게 된다. 한국 선수단이 기량과 투혼을 한껏 발휘해 국위를 선양할 기대된다.

우리의 목표는 ‘10-10’이다. 최소한 금메달 10개를 따내 10위권에 오르는 것이다. 목표대로라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2위에 놓을 수 있다. 광주·전남 출신을 비롯 우리 선수단이 선전해 고울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해주길 바란다.

우려되는 것은 테러다. 지난 4일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이 베이징과 홍콩, 청다오, 상하이 등에서 분산 개최되는 만큼 경호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 불상사를 막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리는

역대 올림픽에 14번 참가해 1984년 LA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10위에 오른 이후 5차례나 10위권에 진입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선 4위에 올라,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번에도 양궁, 태권도, 사격 등 전략종목에서 선전하면 목표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다.

올림픽의 기본정신은 우정과 화합을 다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승리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성적도 무시할 수 없다. 광주·전남 출신을 비롯 우리 선수단이 선전해 고울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해주길 바란다.

우려되는 것은 테러다. 지난 4일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이 베이징과 홍콩, 청다오, 상하이 등에서 분산 개최되는 만큼 경호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 불상사를 막아야 할 것이다.

## 無 等 鼓

베이징(北京)의 역사는 유구하다. 베이징은 전국시대 연(燕) 나라부터 출발해, 요(遼)·금(金)·원(元)·명(明)·청(清) 등의 수도를 거쳐 1911년 신해혁명으로 탄생한 중화민국 초기에도 중심으로서 800년이 이어졌다.

1928년에 베이징은 시(市)로 정해지고 ‘베이징’(北平)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공산당의 수립과 함께 베이징이라 명칭을 되찾고 다시 수도가 됐다. 이후

‘죽(竹)의 장막’으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폐쇄정책에 따라 베이징은 1970년대 초까지 서방세계와는 담을 쌓고 고립화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에 서방세계와는 담을 쌓고 고립화되었던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 있다. 미래 대한민국 국력의 바로미터가 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베이징은 ‘핑퐁 외교’(Ping-pong外交)로 베일을 벗는다. 지난 1971년 제31회 나고야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미국 선수대표단과 기자들이 베이징, 상하이 등을 순방함으로써 20년 이상 막혔던 서방과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됐다. 이듬해 2월에는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된다. 중국인들에게 베이징올림픽의 의미는 남다르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중화’(中華)로 가는 발판이 곧 올림픽이다.

우여곡절 끝에 8일 시작하는 베이징 올림픽, 중국의 새로운 세기를 열어갈 디딤돌이 될지 지켜볼 것이다.

/박지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 임선택

최근 들어서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 는 안과질환이 ‘황반변성’이다.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게 눈의 ‘망막’이라 는 조작인데 그 중 한가운데 중심부 망막을 ‘황반’이라고 하며, 이 부분에 손상이 오는 경우를 통틀어서 ‘황반변성’이라고 한다.

황반변성이 시작되면 사물이 정상보다 크거나 작게 보이고, 직선이 굽어보일 수도 있다. 심하면 글씨를 읽을 때 어느 부분이 지워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심각한 안질환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황반변성이다.

이 질환은 과거 동양인에게는 매우

## 기 고

## 김정인



력 저하를 막는 정도라는 한계와 4~6주 간격으로 세 번 이상 눈에 직접 주사 를 놔야하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단점에 비해 효과는 타월했다. 기존치료법에 비해 신생혈관의 증식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부작용도 거의 없었다.

문제는 단 하나, 비용이었다. 루센티스는 약 가격만 160만원에 달하고, 3회 이상을 시술받아야 하니 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고민스럽던 차에 ‘아바스틴’이라는 약이 등장했다. 이 약은 전이된 대장암의 치료제로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주사제인데 분자구조가 루센티스와 매우 비슷하다. 이 점에 관심을 가졌던 데

## 독도를 지키는 길

그런데 독도와 북방 4개 섬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독도는 우산국의 일부로서 신라·지증왕 13년(512년) 신라에 병합되며 아버지로 여겨지는 고구려의 영토였다. 독도는 단 한 번도 일본과 일본·북방 4개 섬을 넘어서는 일본과의 영토로 여겨지지 않았다. 일본은 1855년 라·일 통상조약에서 쿠릴 열도의 나머지 섬들과 사할린의 절반을 러시아에 뺏겼을 때 4개 섬은 여전히 일본에 속했다. 그랬는데 1945년 8월 조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일본은 독도·뿐 아니라 러시아 영토인 북방 4개 섬도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일본 영토’라고 새 교과서 해설서에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와 훗카이도 북쪽의 4개 섬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우리가 독도 문제를 대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력이 우리 영토를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리적으로 볼 때 북방 4개 섬, 즉 에토로후,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는 러시아·캄차카 반도보다는 일본 훗카이도에 훨씬 가깝다. 현재는 러시아 영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 섬들은 일본 영토였던 적이 많다. 1855년 라·일 통상조약에서 쿠릴 열도의 나머지 섬들과 사할린의 절반을 러시아에 뺏겼을 때 4개 섬은 여전히 일본에 속했다. 그랬는데 1945년 8월 조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듯 일본 측이 독도와 북방 4개 섬을 동일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우리가 독도 문제를 대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력이 우리 영토를

<광주 조대부고 교장>

## 선거 투표소 설치 장소, 종교시설은 피해야

며칠 전 서울시 교육감 직선 투표가 있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시내에만 390여 개소나 되는 투표소가 교회에 설치됐다고 한다. 이는 전남·광주도 마찬가지다. 대선, 총거, 지방선거 때 종교 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결국 ‘종교 상의 이유로 출입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특정 종교 시설에 출입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 즉 헌법과 국제 인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유념해 종교적 이유로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가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종교적 신념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신념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어느 누구도 통제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노은영·목포시 석현동

## 자연장 공원 활성화로 국토 황폐화 막아야

최근 광주에도 자연장이라는 장묘문화가 생겼다. 반가운 일이다.

자연장은 기존 수목장 개념과 비슷하지만 이것은 땅바닥에 가로 30cm, 세로 30cm 가량의 구멍을 뚫고 화장한 유골을 묻고 그 위에 분묘 대신 나무나 꽃, 잔디를 심는 방식이다. 봉분도 없고 잔디나 꽃, 나무 등을 심으니 완전 자연친화형이다.

이렇게 만 하면 1평당 수십 구의 화장한 유골을 묻을 수 있으니 기존 분묘보다는 수십 배 이상, 낭 phí보다도 10배 이상을 더 수용할 수 있고 누구나 소풍도 가고 공원처

럼 지낼 수 있다.

해당 구역마다 꽃을 심어 이름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유족족들이 찾기 쉽게 꾸민다. 예를 들어 국화꽃을 심은 구역은 ‘국화로’, 금잔디로 꾸민 곳은 ‘금잔디로’, 블립을 심은 곳은 ‘블립로’라는 식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화장률은 56.5%라고 한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국토와 산지를 보호할 수 있다. 조만간 우리 주변에서도 정원형 자연장 공원으로 소풍도 가고 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권희숙·광주시 남구 입촌동

##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www.kwangju.co.kr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내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